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 활짝

21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생태체험학습장에 나들이 온 어린이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배경 삼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옛 청사 안사려면 도시계획 풀어 줘”

도교육청, 광주시에 매각협상 재개 요구

市 “재정 마련 어려움…2013년께나 가능”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청사 부지 3만 6938㎡에 대한 매각 협상을 다시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이 재정 문제를 들어 광주시에 조속한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중의문화예술밸트 조성 계획 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수백억원 대의 공공기관 부지를 두고 양 기관의 팽팽한 춤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지난 2007년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전남도교육청 매각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예산을 감안하면 2013년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

지난 2007년 광주시는 전남도교육청 옛 부지를 220억원에 매입하려 했으나 전남도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윤장현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 교실 개소식을 연다.

방과후 교실은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민족 등이 4000여만원을 들여 이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한 공간(165㎡)이다.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으며, 당장 2013년에야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공시설인 만큼 민간에 매각하는 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광주시에 구체적인 매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의문화예술밸트 계획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낫지만 광주시가 미디어파크 부지에서 제외 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면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유아·초등 장학사 11명 선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와 초등분야 교육전문직(장학사) 1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유아교육 1명, 초등교육 일반 10명(교감 2명, 교사 8명)이며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광주지역 학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오는 9월 26일까지 접수, 10~11월

중 1~2차 전형을 거쳐 11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 전형은 논술평가(40점), 보고서 작성(30점), 교육행정실무(30점)로, 2차 전형은 수업 및 장학역량 평가(40점), 심층면접(40점), 현장 대면평가(20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中 조선족 학교에 방과후 교실 지원

우리민족·광주시교육청, 연변에 4000여만원 들여

(사)우리민족(옛 광주·전남 우리민족 서로 돋기운동·이사장 윤장현)과 광주시교육청이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개설한다.

21일 우리민족에 따르면 23일 중국 연변의 도문 제2소학교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윤장현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 교실 개소식을 연다.

방과후 교실은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민족 등이 4000여만원을 들여 이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한 공간(165㎡)이다.

방과후 교실에는 교사들이 상주하면서 결손가정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지도하는 돌봄교실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우리민족과 시교육청은 조선족 결손가정의 학생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한계를 감안, 지원에 나섰다. 도문 제2소학교 재학생 780여명 가운데 60% 가량이 결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475건 발생

OECD 회원국 중 30번째로 많아

2009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200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75.9건으로 32개국(호주·칠레 제외) 중 많은 순서로 30위를 차지했다.

멕시코가 27.5건으로 가장 적었고 평균은 336.2건이었다.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는 미국(504.2 건)과 일본(577.7건)이다. 자동차 1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4건으로 통계를 낸 31개국 중 가장 많았다. 100건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덴마크가 14.9건, 프랑스와 그리스가 18.7건으로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88.8건이었다. OECD 평균은 55.1건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2명으로 자료가 파악된 33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영국이 3.8명으로 가장 적었고 그리스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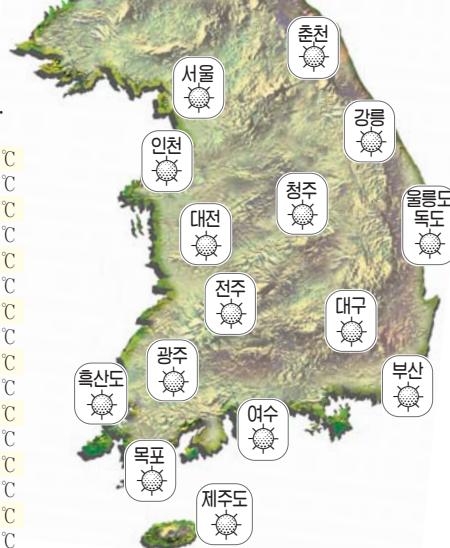
해들 06시 20분 해질 18시 30분

달들 00시 16분 달질 14시 46분

건강 조심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주	맑음	13/24°C
목포	맑음	14/22°C
여수	맑음	16/23°C
나주	맑음	11/26°C
완도	맑음	14/24°C
구례	맑음	9/24°C
강진	맑음	12/24°C
해남	맑음	11/24°C
장흥	맑음	11/24°C
순천	맑음	12/25°C
영광	맑음	11/23°C
전주	맑음	13/24°C
군산	맑음	10/24°C
남원	맑음	11/22°C
혹산도	맑음	7/23°C
		15/2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일반다	북서~북	0.5~1.5m	낮음	주의
남해 서부	일반다	북서~북	1.0~2.0m	높음	보통
	일반다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반다	북서~북	0.5~1.0m	08:26	02:37
	일반다	북서~북	0.5~1.5m	21:42	14:21
남해 서부	일반다	북서~북	0.5~1.0m	여수 04:16	10:25
	일반다	북서~북	1.0~2.0m	17:19	23:47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기상청)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씨	최저/최고 13/25	14/25	14/26	14/26	14/27	15/26

자살 이어 이혼율도 급증

위기의 50대 男

이른바 ‘58년 개띠’가 속한 50~54세 남성의 작년 이혼건수는 1만5천813건으로 2006년 1만1천729건에 비해 4천84건, 34.8% 증가했다.

이는 작년 전체 이혼건수 11만6천858건의 13.5%에 달하며, 2006년의 9.4%에 비해서는 4.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작년 같은 나이대 여성은 1만1689명이 이혼해 2006년 7628명에 비해 4061건, 5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세대 남성 중 이혼 상태인 비율은 2005년 0.77%에서 작년 0.8%로 높아졌다.

이는 작년 전체 이혼건수 11만6천858건의 13.5%에 달하며, 2006년의 9.4%에 비해서는 4.1%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작년 같은 나이대 여성은 1만1689명이 이혼해 2006년 7628명에 비해 4061건, 5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세대 남성 중 이혼 상태인 비율은 2005년 0.77%에서 작년 0.8%로 높아졌다.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여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건적이나 덤핑건은 놓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최용전

최용후

“내 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MBC SBS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